

종합·국제

“김용철씨 삼성계좌 본인이 개설 안해”

금감위, 차명 또는 도용된 듯...우리는행 등 실명제법 위반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우리은행과 국민신한증권에 김용철 변호사 명의의 계좌가 개설될 당시 김 변호사가 해당 금융회사 직원 직접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과 문제의 계좌는 차명 계좌와 도명 계좌 가운데 하나인 셈이지만 금융감독 당국은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아 최종적인 판단은 검찰의 몫으로 넘어갔다.

금융감독위원회 홍영만 홍보관리관은 12일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과 국민신한증권에

대한 현장 검사를 벌인 결과, 문제가 된 4개 계좌가 개설될 당시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관리관은 “4개 계좌 모두 이들 금융회사가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었지만 관련 직원을 조사하고 정황 증거를 확인한 결과 계좌 개설 때 김 변호사가 해당 지점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본인이 금융회사를 방문했다면 실명확인증표만 제출하면 되고

대리인이 방문했다면 위임장과 실명확인증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실명확인증표는 금융회사에 보관돼 있지만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우리은행과 국민신한증권은 또 돈세탁이나 불법자금으로 의심되는 2천만원 이상의 자금 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이들 금융회사의 법 위반은 과실이리라 보다는 고의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금융회사나 담당 직원이 계좌 개설부터 고액 현금 거래까지 조직적으로 개입했거나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알제리 폭탄 테러...유엔 직원 등 52명 사망 알제리 수도 알제 시내 2곳에서 지난 11일(현지시간) 수 분 간격으로 차량폭탄 테러가 발생해 유엔 기구 직원 10명을 포함 최소 52명이 사망했다. 이날 테러는 알-카에다에 연계된 이슬람 무장세력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과 구조요원들이 파괴된 빌딩 주변에서 구조 및 수색작업을 펴고 있다. /AP-연합뉴스

한국, 가족친화적 고용여건 OECD '최악'

주 40시간 근로여성 비율 77% '최고' 출산율은 최저...남녀간 임금격차도 커

우리나라 여성의 근무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길고 남여간 임금격차도 커 가족친화적 고용여건이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OECD의 ‘일과 가족생활의 조화를 위한 정책’ 보고서와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의 비중은 우리나라가 77%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았으며 OECD 회원국 평균인 49%의 1.5배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2위인 미국의 64%에 비해서도 13%포인트 많은 것으로 일본(48%), 이탈리아(44%), 스웨덴(40%) 등 주요 국가와도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다.

남성의 경우도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한국이 87%로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지만 미국(84%), 일본(80%) 등과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또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대졸 이상 여성의 고용률이 의무교육만 마친 여성의 고용률보다 낮은 유일한 국가로 조사됐다.

2004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졸 여성 고용률은 57%로 고졸이하 여성 고용률 59%보다 낮아 고학력자의 취업환경이 OECD 국가 중 가장 열악했다.



반면 미국과 호주,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의 경우 대졸 여성의 고용률과 의무교육만 마친 여성의 고용률은 20%포인트 이상 벌어졌다.

이에 대해 OECD 보고서는 한국은 여성 평균임금이 남성 평균임금보다 크게 적어 남녀간 임금격차가 OECD 평균의 2배를 넘었으며 이는 여성의 취업 의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5년 기준 한국의 출산율은 1.1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였으며 여성 고용률(15~64세 기준)은 52.5%로 OECD 평균인 56.1%에 비해 낮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가족친화적 고용문화가 정책적으로 이미 제도화된 대다수 선진국들은 여성 고용률도 높으면서 출산율도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中 지도부 중엔 '흰머리' 없나 WSJ "젊어 보이며 염색"

후진타오 국가주석 등 중국의 지도층에서 흰머리카락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기가 거의 어렵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 중국의 정치·경제 지도자들이 나이가 들었음에도 대부분 검은 머리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유전적인 원인이 있지만 중국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염색을 하는 것이 일상화됐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을 이끄는 공산당 정치국의 상무위원 9명은 나이가 52~67세에 이르지만 이들 중 흰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한명도 없다. 장쩌민 전 국가주석조차도 나이가 81세이지만 주요 정치행사에 여전히 검은 머리를 모듬을 나타낸다.

중국 국영기업체의 한 간부는 TV 등을 통해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이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신문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중국에서 검은 머리에 집착하는 것은 중국 근대의 사회적 여건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관리구역 3통’ 군사보장 협의

南北 장성급 군사회담 첫날

남북은 12일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제7차 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해 남북관리구역의 3통(통행·통신·통관)을 위한 군사보장협의를 체결하고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 문제를 협의했다.

14일까지 출퇴근 형식으로 진행될 이번 회담에는 이흥기(육군소장)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김영철 인민군 중장(남측 소장급)을 양측 수석대표로 4명의 대표가 각각 참석한다.

김 중장 등 북측 대표단은 이날 오전 9시26분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회담장인 평화의 집에 도착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전체회의에서 이흥기 남측 수석대표는 “오늘은 3통 문제를 해결하고 내일부터는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자”며 “특히 오늘 3통 문제가 잘 협의되면 개성공단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산~봉동간 화물열차 개통으로 물류비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며 “25t 트럭 1대의 물류비가 50만 원인 데 이를 반으로 줄일 수 있고 경협이 활성화되면 유라시아대륙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영철 북측 수석대표는 “3통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북)에게 얘기하고 이재정 통일장관도 해결해 달라고 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측

도 순순히 응한 것”이라고 화답했다.

첫날 회담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남북관리구역의 3통을 위한 군사보장협의를 이미 양측이 초안을 교환한 상태 때문에 비교적 쉽게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측이 서해 공동어로구역의 위치 문제를 먼저 타결짓자고 나올 경우 관리구역 3통을 위한 군사보장협의를 체결해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공동어로구역 위치 설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할 계획이지만 양측의 이견이 광범한 북방한계선(NLL)과 맞물려 있어 쉽게 타결되기 어려울 것이라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美 상원 '北 테러지원국 해제 반대' 결의안 제출

샘 브라운백 등 미국 상원의원 4명은 11일 미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전에 달성해야 할 전제조건들을 명시한 상원 결의안(SR399)을 의회에 제출했다.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방침에 제동을 걸고 북한체제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주문한 이번 결의안은 북미간 핵폐기 협상이 고비를 맞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샘 브라운백, 척 그래스리, 존 카일(이상 공화), 조지프 리버먼 상원의원(무소속)은 이날 결의안에서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대북 제재를 해제하기 전에 특정

조건들이 기준에 충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 기준으로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 생화학 기술을 외국, 특히 이란 시리아 등에게 불법 이전하는데 더이상 연루돼 있지 않고 ▲국제 테러조직을 훈련시키거나 보호하거나 재정지원하는 등 어떤 식으로든 개입해 핵 폐기 협상이 고비를 맞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샘 브라운백, 척 그래스리, 존 카일(이상 공화), 조지프 리버먼 상원의원(무소속)은 이날 결의안에서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대북 제재를 해제하기 전에 특정

한·중 군사 핫라인 20일째 개통될 듯

우리 군과 중국군 간 비상 연락수단인 핫라인이 오는 20일째 개통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12일 “한·중 직통방(핫라인)을 내주 후반에 개통하는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면서 “실무작업이 끝나면 20일째는 개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5월 양국 수교 기념일인 8월 24일을 전후로 핫라인을 개통하기로 했으나 중국측이 예초의 견 접근을 이뤘던 설치 장소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해 지연됐다. /연합뉴스

日 올해는 '거짓의 해' 올해의 한자 偽 선정

일본에서 올해 벌어진 사건과 한해를 상징하는 한자로 '거짓과 속임'을 의미하는 '위(偽)'가 선정됐다. 일본 한자능력검정위원회는 12일 교토 기요미즈테라

에서 '올해의 한자'로 위(偽)자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협회 관계자는 “올해는 식품안전 분야에서 최고를 자부하던 일본에서 불량 식품으로 인한 파문이 끊이지 않고 있는 한해였다”며 위(偽)가 선정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올해의 한자 2위와 3위로 '식(食)'과 '허(嘘)'가 선정돼 불량식품 파문과 관련된 한자들이 상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전액국비수강생모집

부동산실무

구분	교육과정	교육기간	개강
재직자 및 일반인	공인중개사	2개월	매월초
	주택관리사	2개월	매월초

※ 2008년도 대비 6개월과정 특별반 접수중!! (주간반/야간반/주말반)

컴퓨터

구분	교육과정	교육기간	개강
재직자 및 일반인	컴퓨터활용실무	2개월	12월 3일
	CAD	2개월	매월초
	워드실기	1개월	수시
	컴활실기	1개월	수시
	정보화기초 1.2	5주	매월초

※ 교육대상 :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자 교육수료후 환급 ■ 일반인 및 대학생 수강료 특별할인

●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현대직업전문학교

동부경향서점 ☎224-4560, 232-1088 http://www.hdedu.co.kr

= '08년 국가+지방직 시험대비, 동계방학 대강좌! =

7급 공무원

완전 대비

강좌안내

행정직	교수	관공	감사	법원	검찰	고정	보훈	소방	전차	복합	토목	건설	물리
직	직	직	직	직	직	직	직	직	직	직	직	직	직

※수많은 선배 공무원들의 '無等, 선택은 역시 지혜로웠습니다※

개강 : 12월 17일 주·야 (총화)반모집 (협재예알)

= 46년 전통의 無等은, 강의第一! 합격최다란 말을 듣고 있다 =

www.kjkimyoung.co.kr

Final Course

개강 12월 17일

문제풀이반 6주완성 | 이론과정반 6주완성

편입이런? | 학년 대비반 12월 17일 개강

전문대 졸업예정자, 4년제 대학 2학년만 미치면 누구나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 3학년으로 편입가능!

김영면임·PMS학원 (광주동부경향서점) ☎227-8088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난방

“갈레오” 원적외선 필름난방이 책임집니다.

난방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원적외선 필름난방은 고효율의 복사열 난방방식이기 때문에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원적외선에 의한 복사열은 시온구 연결

원적외선을 방사하므로 찜질효과 있습니다. 필름난방에서 방출되는 강력한 원적외선 에너지는 우리 몸 내부를 먼저 따뜻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쉬운 난방공사. 반도체 도핑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갈레오 필름난방은 당일 시공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쉬운 난방공사를 실현합니다.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 인식하세요. 타제품 열선대신 탄소편상발열체 사용으로 전자파제로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주)태양상사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TEL. (062)262-0101